

## ‘십자가의 길’

### 고난주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고난주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이다. 이 기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기도하고,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한다.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자신의 죄와 기도제목들을 적은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을 하면 된다.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회 주제

는 ‘십자가의 길’이다.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3월 30일(월) ‘십자가의 길’ (막 15:16~25), 31일(화) ‘십자가의 용서’ (눅 23:33~38), 4월 1일(수) ‘십자가의 절규’ (마 27:45~49), 2일(목) ‘십자가의 완성’ (요 19:28~30), 3일(금) ‘십자가 밑에서의 고백’ (마 27:50~54)을 주제로 해외비전교회 담당목사들이 설교한다. 4월 3일(금)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교회 전체 교역자가 특순한다.

조은정 권사(고양은평공동체)는 “365일 중 40일의 새벽을 온전히 하



사진은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나눔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 매해 참여하고 있다”며 “주

시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CGN 개국 21주년 감사예배

### 임직원 및 관계자 223명 참석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개국 21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3월 27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렸다. CGN 임직원과 온누리교회 리더십, 교계 인사 등 223명이 참석했다. CGN 개국 21주년 감사예배는 김용기 장로(실행위원장) 대표기도, CGN 임직원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CGN 이사장) 메시지, 전진국 대표(CGN) 감사 인사, 함태경 본부장(CGN) 장기근속자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사 43:18~21)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CGN의 21년 역사와 같다

”면서 “앞으로도 CGN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진국 대표는 “CGN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을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면서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에 기도와 후원, 응원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기사 6면>

CGN 개국 21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다. 4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CGN TV편성 기준), ‘소년이 어른이 되어’, ‘땅끝의 증인들’이 방송된다. 기독 OTT 플랫폼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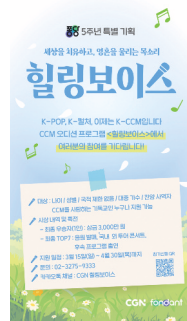
##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 4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CGN 기획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를 4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와 찬양사역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는 지원서와 가장 영상(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가장 영상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지원서 양식과 지정곡 리스트 등 자세한 사항은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이 끝나는 5월에는 심사를 통해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7월부터 예선과 본선,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고, 결선에 진출한 TOP 7인에게는 CGN 프로그램 출연, CCM 음원 발매, CGN 월드투어 콘서트 참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박지혜 기자



##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

###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7주차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마지막 7주 차(3/30~4/5, 고난주간)에 돌입한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 7주 주제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다. 지난 40일 동안 가장 도전이 되었던 실천 사항 한 가지를 정하고, 일상에서 지속하며 간증을 나

눈다. 캠페인 기간에 묵상한 내용과 실천 사항, 실천 사진, 소감문을 문자메시지(010-5395-2319) 또는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제출하면 우수작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소감문을 제출할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차세대는 ‘겸손, 순종’을 주제로

실천사항을 이어간다. 30일(월) 부모님이 부탁하신 일을 즉시 실천하기, 31일(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간식비 일부를 저금하기, 4월 1일(수) 학교나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기, 2일(목)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3~4일(금~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미디어 금식 동참하기를 실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 4월 5~18일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

온누리M미션이 오는 4월 5일(일)부터 18일(토)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2026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을 진행한다.

모자이크 주간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

모자이크 교회’의 정체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M미션 소속 외국인 성도들이 각 캠퍼스를 방문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성도 간 교제와 연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 다대오 유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

마가복음 3:16~19, 요한복음 14:21~24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번째 제자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 혹은 ‘다대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제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대오’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의 일부 사본에서는 ‘레베오’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다대오’는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테오도토스’라는 이름의 단축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부모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또 ‘가롯 유다’처럼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넣어서 구분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미가 같은 다른 언어, 그리스어나 아랍어 등 다른 언어의 의미가 같은 단어를 차용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대오’와 ‘유다’라는 이름을 당대인들은 마치 히브리어 사울과 그리스어 바울처럼, 같은 운율을 가졌기에 비슷한 발음으로 여기고 차용했습니다. ‘다대오’와 ‘유다’가 같은 발음권에 있기 때문에 ‘유다’라는 사람이 ‘다대오’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유다’라는 본명을 가진 제자가 그리스식 별명인 ‘다대오’, ‘테오도토스’의 약칭으로 불린 것입니다. ‘테오도토스’라는 이름, 당시 그리스 이름들, 유대인들 가운데 ‘테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간 이름들을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서 ‘다대오’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다대오’의 그리스 발음으로 ‘타다이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다대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발음으로는 ‘테오도토스’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저는 ‘다대오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 유다가 던진 질문의 초점, 우리가 아니라 세상

다대오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 외에 나오는 기록은 <요한복음> 14장 22절이 유일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 한 번 던진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요 14:22).

다대오 유다의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듯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질문했습니다.

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질문했고, 빌립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오 유다가 던진 질문은 “주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한 다대오 유다의 질문과 앞서 질문한 세 명, 베드로, 도마, 빌립의 질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앞서 질문한 세 명은 초점이 우리, 곧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들도 그곳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도마는 “주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습니다. 초점이 공통적으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 알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대오 유다의 질문은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22절b).

여기에 다대오 유다가 던진 질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다대오 유다는 1세기 팔레스타인을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주신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반응하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21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다대오 유다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 다대오 유다의 질문, 두 가지 의미

다대오 유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지 않으시는가? 둘째, 실존적 좌절입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로마는 여전히 유대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나타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다대오 유다가 던진 질문은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불의함을 보는 눈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방식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에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질문이 아니라 평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다대오 유다는 온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세상에도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통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대오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쁜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의 시각 차이입니다. 그는 당장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훈을 통해서든 로마 시저의 통치를 끝내주시고, 유대의 불의한 관료들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대오 유다의 생각은 당시 열심당원들의 생각 흐름과 같은 맥락입니다. 라틴어 성경 사본에서 다대오 유다를 ‘열심당원 유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그들의 시각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만큼은 아닐지 모릅니다. 칼을 들고 사람들을 암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맥락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은 반드시 이 세상을 공개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신실한 주의 임재 통로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2의 모세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신다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다대오 유다에게도 그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다대오 유다의 오해와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23-24절).

예수님의 대답은 21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내주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대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대오 유다는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풀어 쓰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풀어 써 보았습니다.

“다대오 유다야, 나는 네가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통치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나라는 로마의 시저를 끌

어내리고 유대를 독립시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나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며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나도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지만 나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그들의 권한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버지께서 명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대오 유다의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알아주면서 그가 가진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통치 세력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주하심, 내적인 거주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유다의 오해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변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며, 메시아의 공개적인 나타남, 현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의 변혁은 내부로부터, 사랑과 순종으로 형성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심,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신실한 임재가 된다”

다대오 유다의 질문 속에 나타난 선교적 관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다른 세 명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다대오 유다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우 올바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온 세상을 비추셔야 하는데 왜 제자들에게만 비추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세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준 한계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 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세상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결국 다대오 유다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데사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다대오 유다의 질문을 각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 답의 일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성도들에게도 다대오 유다와 같이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대오 유다에게 주신 답변을 기초로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내 방식은 다르다. 나는 너희 안에 거처를 삼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나는 너희를 통해 세상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종교 문화 사회학자인 제임스 헌터가 쓴 <To Change the World>, 한글로는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

킨 세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어적 대응’입니다. 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반응을 취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열심당원이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당장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문화적 관련성 추구’입니다. 메시아는 억눌린 자의 편에 계신다는 입장으로 ‘필요에 응답해야 된다’는 자유주의 여러 신학 사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셋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분리주의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패러다임 모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패러다임 모두에게 깔려 있는 원한과 분개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제임스 헌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제자들의 신실한 임재, 이 세상 안에 신실하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대안이다.”

다대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 신실하게 존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많은 문제를 소수 사람들의 책임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신실하게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신실한 임재가 된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 신실한 주의 임재 통로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 비판이론은 실용적일까?

누군가가 대화 중에 “비판이론은 억압을 식별하고 끝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억압을 멈추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이론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비판이론은 어떤 인간 사회든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곧,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판이론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어떤 제도, 관계, 신념 체계도 억압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 부당한 억압을 끝내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이론은 실제로 억압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권력과 억압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비판이론은 권력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 역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다. 부모 역할과 결혼 같은 관계는 사랑과 존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병원 같은 제도도 억압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제도나 학문 분야가 억압의 도구라고 가정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억압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

가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악의가 있지만 사랑도 있다. 착취가 현실이지만 자선도 현실이다. 모든 것을 억압의 도구로만 바라보면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잘못 그리게 된다.

둘째, 권력과 특권은 상대적 개념이다. 비판이론에서 인종, 성적 지향, 성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괴약압자 집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억압자 중 하나인지 결정한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존재이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이점이 되는 특성이 다른 맥락에서는 불리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당신을 특권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 이란에서는 오히려 당신을 억압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남침례교 총회 모임에서는 특권층인 개인이, 길 건너편 인권단체 집회에서는 억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현실은 어떤 사람이 X 때문에 항상 억압받는 다거나 Y 때문에 항상 특권을 누린다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살아온 경험’은 진리를 판단하는 오류 없는 안내서가 아니다. 비판이론은 억압받는 집단의 살아온 경험이 진리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주며, 그것은 도전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들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비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경험 뿐인 것은 아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경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만큼이나 진리에서 멀어지게도 한다. 부모, 친구, 상담가, 교사, 목회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을 알려 줄 수 있다. 비판이론이 억압이라고 부르는 그 ‘개입’이 사실 지혜일 수도 있다.

넷째, 비판이론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권력 역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진다. 비판이론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 위에 지배력을 얻는다면 전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비판이론이 권력을 가진다. 비판이론의 ‘규칙’ 대로라면 비판이론이 침묵시키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비판이론 자체가 전복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비판이론이 처음에 전복시켰던 바로 그들 같은 경우가 많다. 비판이론은 누구도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끝없는 혁명과 불만을 요구한다. 권력의 남용이 나쁜 것은 맞지만, 사회 질서는 분명히 좋은 것이다. 비판이론은 영향력을 권력으로 혼동한다. 우리는 영향력이나 심지어 권력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영향력과 권력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미워한다. 비판이론은 실제 문제를 지적하지만 우리가 열망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어떻게 협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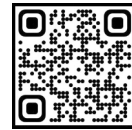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비판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론이 억압에 반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

“권력과 억압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권력은 실재하며 억압도 존재한다. 사랑, 친절, 존중, 자선도 존재한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는 더 나은 이유다.”

“권력과 특권은 상대적 개념이다. 당신의 특권이 옆방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물며 다음 나라까지 이어지기는 더 어렵다.”

“살아온 경험은 진리에 대한 오류 없는 안내서가 아니다. 모두 고유한 경험을 하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경험 자체가 우리를 옳다고 만들지는 않으며, 누구도 비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비판이론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권력 역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모순적이다. 억압받는 사람이 억압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순간, 그들은 억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대체 어떻게 말이 되는가?”



원문 영상 QR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삶과 신앙

##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장관수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일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묵상, 은혜로운 나눔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말씀이 감동으로만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성도의 모습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지적 동의를 요구하신 게 아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을 원하셨다.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 7:17).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신앙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의 결과이며, 신앙의 진짜 증거다. 우리는 종종 성경 일독 횟수를 신앙의 척도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몇 번 읽

었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읽고 지나가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매일의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실제일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믿음이였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며 행동으로 나아갔던 백부장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마 8:13)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였다. 그 행동이 치유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며,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예수님은 늘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라고 선언하셨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세계관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아직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참된 제자의 길 또한 이와 같

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율법학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제자의 길이 편안함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참된 제자는 다른 목적이나 영광을 기대하며 따르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삶이 제자의 본질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였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빌 2:6-8).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산된 신앙이 아니라 헌신된 삶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참된 제자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철학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공동체에서의 관계와 섬김까지도 말씀의 빛 아래 두는 삶이다.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목

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몇 번의 결단과 다짐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장로인 나 역시 그러하다. 10개월 동안 장로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넘어지며 실패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 위에 선 삶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감동적인 메시지가 넘쳐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 받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삶,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독교 세계관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 “고난을 완벽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 이경수 순장이 고백하는 ‘예수 따르는 삶’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이경수 순장(부천온누리교회 희락공동체)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고난 속에서 예수를 따르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경수 순장(부천온누리교회 희락공동체).

의 흔적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눈물과 오랜 시간 드린 기도가 이 순간을 준비하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기도가 이런 형태로 응답 될 줄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소망으로 품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 마음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걸 알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암이 하나님께 제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복음의 흔적들을 얻었는데, 저에게는 암이라는 예수의 흔적을 먼저 주시고, 그 흔적을 보며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 선교지가 된 암 병동

항암치료는 그해 12월부터 시작됐다. 매주 목요일 입원해서 토요일에 퇴원하는 일정이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어느 환자들과 다름없었다. 먹고, 치료받고, 자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산책하던 이경수 순장 눈에 병실 문에 적힌 환자들 이름이 들어왔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날부터 이경수 순장은 암 병동을 선교지 삼았다. 매일 복도를 거닐며 병실 앞에 잠시 서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복도에서 두세 번 마주치는 이가 생기면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떤 암인지,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물었다. 같은 처지였기에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도 암 환자인데, 선생님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라며 기도를 제안했다. 그의 말에 누군가는 손사래를 쳤지만, 대부분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기도에도 눈물을 흘렸다. 기도를 마치면 짧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건넸다. 그 명

함을 보고 연락을 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 순장은 퇴원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병동 전도를 하며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다. 급성 백혈병인 스물두 살 딸을 간병 중이던 어머니다. 이경수 순장이 매일 그 병실 앞에서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느 날 먼저 다가왔다. 자신도 이 순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였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매일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순장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빌고 있던 것이다. 그 순간 이경수 순장은 〈사도행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아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한 것처럼,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했다. 이경수 순장 눈에는 암 병동에 있는 환자들 이름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한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은퇴 이후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선교지는 먼 해외가 아니라 제가 누워있는 암 병동이라는 사실요. 하나님께 한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급하고 간절한 사역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 제 상황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항암치료가 거듭될수록 독한 약물 탓에 여러 부작용이 찾아왔다. 보통의 환자라면 질병을 원망하거나 병마와 싸워 이기는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경수 순장에게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왜 자주 네 몸에 대고 소리치고

저주하느냐. 이미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암세포와 싸우고 계시니 너는 네 몸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경수 순장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심장, 간, 췌장, 폐 등 장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했다. 골수를 예수의 보혈로 덮고 혈액이 깨끗해질 것을 선포했다. 새벽 5시 반, 병실 커튼을 치고 홀로 드리는 골방 예배도 시작했다. 이어폰을 꽂고 손짓과 발짓을 동원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경수 순장의 기도 위에 아내의 수고와 헌신,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더해졌다. 가족, 성도들과 함께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다.

이경수 순장의 치료 경과를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였다. 50대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6개월 만에 자가 골수 이식을 마치고 부작용 없이 회복된 사례는 드물었다. 담당의가 이경수 순장의 임상 기록을 논문에 싣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비급여였던 골수암 치료 신약이 2025년 2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고, 이경수 순장이 첫 번째 수혜 환자가 됐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그는 다르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모든 과정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척추뼈를 부러뜨려서 암을 찾아내셨고, 암 투병 가운데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 몸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는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이경수 순장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그에게 암 병동이 선교지였고, 복도가 전도 현장이었다.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를 따르는 부르심의 자리였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미리 준비하고, 완성시켜 두신 다음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따를 뿐입니다.”

이경수 순장의 고백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그분께 응답하는 삶인지도 모른다. 이경수 순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실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는 그 일을 완벽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CGN 대표 전진국 장로와 함께

# “디지털 복음의 등대 CGN, 선교의 내일을 더합니다”

##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잇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의 꿈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어느덧 스물한 살, 청년이 됐다. 2005년,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 복음 방송’을 기치로 내건 CGN이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지 벌써 21년이 지났다. 태동부터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도 CGN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번 비상을 꿈꾼다.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잇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라는 새로운 꿈을 꾸는 CGN 대표 전진국 장로를 만났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지난해 CGN이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며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새로운 슬로건 선포 이후 거침없이 달렸고, 성장했으며,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슬로건 달성을 위하여 내달리고 있다. CGN 대표 전진국 장로는 그 여정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털어놓았다.

“CGN의 지난 20년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에 목숨을 건’ 각오, Acts29 비전을 품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 열정 덕분에 탄생했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CGN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CGN이 또 한 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개국 21주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20년이 복음 방송의 기반을 다지고, 양질의 기독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잇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CGN이 보여준 도전사(史)  
그 대표적 사례 영화 ‘무명(無名)’**

지금껏 CGN은 한 번도 안주하거나 멈춰선 적이 없었다. CGN이 보여준 도전사(史)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CGN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며 세상에 내놓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다. CG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건너와 복음을 전했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 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의 삶을 그렸다. “그 어두운 시대,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던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존재했고,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개봉한 지난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CGN은 복음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했고, 끝내 이뤄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CGN의

역할이고 영향력입니다.”

실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가져온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국내 교계를 넘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상영 요청이 쇄도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코하마에서 일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CGN 일본 지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향이 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상영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약 200회 정도 찾아가는 상영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GN이 만든 영화로 한국과 일본이 아픔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의 도전을 주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CGN의 노력과 결실을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미국에서 열린 제53회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크라운 어워즈에서 CGN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금상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CGN 미주지사가 제작한 ‘더 파이널 프로젝트(The Final Project)’는 제작비 5만 달러 이하의 베스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은 해외 무대에서도 CGN의 콘텐츠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큼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시상식은 NRB 컨퍼런스 및 박람회와 함께 진행됐다. CGN은 그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사역을 소개했다. 다양한 국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협력 가능성을 넓혔다. 한국 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계기를 마련했다.

“CGN은 2017년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시작으로 2025년 영화 ‘무명(無名)’에 이르기까지 선교와 복음을 담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넘어 극영화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그 안에 자연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잇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을 꿈꾸는 전진국 대표.

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자 합니다.”

**“K-CCM 열풍도 불게 하겠다”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CGN은 ‘K-CCM 열풍도 불게 하겠다’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섰다.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를 선보인다.

“잘 알다시피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흐름입니다. CGN은 K-CCM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참여 그리고 고백.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에는 전문 CCM 사역자뿐 아니라 찬양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기대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주시요.”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는 CGN의 ‘글로벌 확장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CCM은 국내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K-콘텐츠가 세계로 확장된 것처럼, K-CCM 역시 글로벌 무대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는 CGN의 6개 해외 지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자

를 모집합니다. K-CCM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오디션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TOP7에 선발된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월드 투어와 음반 제작 등을 통해 찬양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힐링’, ‘위로’, ‘공감’, ‘용기’ 같은 하나님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복음과 교회에 다가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CGN의 사명에 끝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개국 21주년을 보내는 CGN의 비전은 명확하다. ‘Christian Global Network(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그 이름처럼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잇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가 바로 그것이다.

“CGN은 글로벌 선교 미디어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선교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독 OTT 플랫폼 ‘풍당’이 이용자 25만 명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은 만큼 다국어 자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CGN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CGN은 ‘디지털 복음의 등대’라고 정의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CGN의 모든 사역은 온누리교회 성도님과 동역자님들,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끝까지 CGN의 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문의: 02-796-2243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장보원 팀장  
(고양은평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 <소리  
로 흐르는 육아> 저자)

만약 ‘부모 면허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는가? 필기시험부터 낙제다. ‘아이가 울 때 적절한 반응은?’이라는 질문의 정답은 뻔히 아는데, 현실에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실기시험은 더

참담하다. 인내심 테스트 30초 만에 탈락, 감정 조절 항목 미응시, 일관된 훈육 실습 점수는 매일 달라진다. 적성검사 결과란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본인에게 부모 적성이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웃으려고 한 말이 아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채찍하는 부모들의 진심이다. 우리는 스스로 채찍하는데 너무도 익숙하다. 그리고 그 점수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좀 더 안아줄걸’ 등 늘 후회가 남는다. 부모라는 이름은 축복인 동시에 끝없는 자격지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아홉 번의 글에 걸쳐 우리는 육아가 어디에서 흘러오는지, 왜 그토록 어렵고 불안한지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마지막 글에서는 이론을 모두 내려놓으려 한다. 대신,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창세기> 첫 장을 펼쳐보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며 하루하루의 끝에 같은 선언을 반복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a).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매우, 넘치도록 좋았다는 것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간증

“친구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사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좋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웬지 하나님은 역사책 속 인물이나 오래된 소설 속 주인공처럼 느껴졌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제 하루하루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대일로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선언하신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력서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실적도 없었다. 당연히 ‘좋은 부모’였는지, ‘나쁜 부모’였는지를 평가받은 적도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좋다 하신 게 아니다.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 좋다 하셨다.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눈에 너는 심히 좋다.”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 ‘좋다’는 말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통로다.”

아야 인정받고, 성과가 있어야 가치 있고, 잘해야 사랑받는 세상에서 숨 쉬며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조건을 덧붙인다. ‘기도를 더 해야지’, ‘말씀을 더 읽어야지’, ‘좋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등 자격을 갖춰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뜻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조건부 사랑의 문법을 송두리째 뒤엎는 선언을 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8-39).

사망도, 생명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여기에 당신의 실패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포함될 수조차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족함도, 매일

밤 이불 속 자기 채점의 낙제 점수도, 면허 취소감이라는 자괴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러한 사랑 고백을 들 어본 적 있는가? 그분이 이토록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굳이 찾으시고, 알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다. 자격을 갖추 때까지 사랑을 유보하고 계신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지금, 여기서,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길 만큼.

열 편의 글을 관통한 하나의 진리로 이 연재를 마무리하려 한다. 육아는 흐른다. 부모 안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나도 같은 눈으로 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율할 때, 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교실에서 빛나는 아이든, 방문을 닫고 세상을 차단한 아이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든, 당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며 “심히 좋다”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 아이의 존재 앞에서 같은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심히 좋다고 말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포기다. 가장 용감한 사랑의 결심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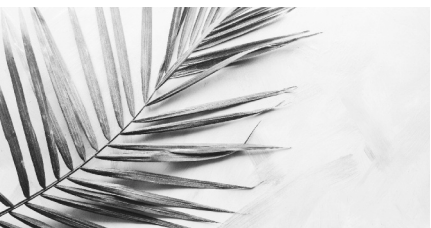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언될 때, 그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당신은 자격 미달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통로이다. 그 통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은혜가 흐르기에 충분하다.



98.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성경 QUIZ



1.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아픔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주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① 감사주간 ② 대림주간 ③ 기쁨주간 ④ 고난주간

2.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기서 이름이 붙여진 이 날은 무슨 주일일까요?

① 소나무주일 ② 종려주일 ③ 포도나무주일 ④ 무화과주일

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직접 제자들의 ‘이곳’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에요. 어디를 씻겨주셨을까요?

① 머리 ② 손 ③ 발 ④ 얼굴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주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훨씬 깊고 진실한 연결감을 느껴요.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벽하고 흠 없는 제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일대일을 통해 저는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걸 깨닫고 제 삶이 정말 많



이서준 학생  
(시드니온누리교회 4차세대)

예술 작품으로 묵상하는 고난주간

## ‘십자가 아래의 공감’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 마테르’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이수공동체)

고난주간이면 마음이 자연스레 십자가 앞으로 간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그림과 음악이 더 깊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다.

올해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작품은 15세기 플랑드르의 거장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1435, 프라도미술관 소장)와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 마테르’이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귀로 듣는 눈물이다. 이 둘은 결국 같은 자리, 곧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데려간다.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에서 판 데르 베이던의 그림 앞에 처음 섰을 때 느낌을 잊을 수 없다. 멀리서 볼 때는 흔한 종교화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단지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볼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생각보다 화면은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인물들은 촘촘하게 얹혀 있고, 그 공간은 마치 숨 쉴 틈도 없이 조여 오는 듯했다. 금빛 배경은 화려하다기보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창백한 몸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무너지는 마리아의 몸이었다.

## 십자가,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이 비스듬히 꺾여 내려오는 선과 성모 마리아가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지는 선이 거의 똑같다. 예수님보다 창백한 마리아의 얼굴에서 ‘아, 어머니가 아들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그 앞에 한참 서 있으면서 인물들의 얼굴과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요한의 눈물, 창백해진 입술, 붙들고 싶지만 끝내 붙들 수 없어 보이는 손가락, 축 늘어진 예수님의 팔과 붉게 흘러내린 고통스러운 핏자국, 그 몸을 조심스레 받쳐 들고 있는 사람들의 떨리는 손길. 옷 주름마저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통의 무게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은 15세기 플랑드르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다. 그의 그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단지 화려하고 사실적인 기교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보이게 만들 줄 알았다. 이 그림의 진짜 놀라움은 규모나 명성보다 화면 전체가 품고 있는 정서적 밀도에 있다. 등장인물은 많지만 산만하지 않고, 슬픔은 깊지만 흩어지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바로 그 절제 속에서 더 큰 울림이 생긴다. 그의 그림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우리는 어느새 장면 바깥의 구경꾼이 아니라 장면 안으로 불러 들어간 사람이 된다.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1435, 프라도미술관 소장).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이미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듣는다. 그러나 신앙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기 전에 참여의 부름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자 요한처럼 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가 성경 속 말씀에서 살아있는 사건으로 바뀐다.

십자가, 그 곁에 서다

이 그림 앞에서 내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음악이 있었다. 바로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 마테르’다. 페르골레시는 1710년에 태어나 겨우 스물여섯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 음악을 남겼다. 죽음을 앞두고 썼다고 전해지는 이 작품에는 한 젊은 영혼의 마지막 숨결 같은 절실함이 배어있다.

‘스타바트 마테르’는 “어머니가 서 계셨네”라는 뜻이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노래하는 중세 라틴 성가인데, 페르골레시는 이 오래된 텍스트로 12곡을 만들어냈다. 첫 곡인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사’를 들어보자. 이 곡은 현악기의 낮은 움직임 위로 여성 듀엣이 서로 기대듯, 때로는 부딪히듯 올라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서 계셨네”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고, 그 슬픔의 호흡 자체를 들려준다. 알토가 먼저 낮고 어두운 음색으로 시작하고, 곧 소프라노가 뒤따르며 선율을 포겐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성부가 나란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 울음을 받아 주는 듯한 인상을 만든다. 한목소리가 아픔을 꺼내면 다른 목소리가 그것을 받아 안고, 잠시 생기는 불협화음은 찢기는 마음 같다가도 곧 조용히 풀린다. 그래서 이 음악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음악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 곁에 함께 서게 하는 음악이 된다.

판 데르 베이던의 그림과 페르골레시의 음악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오래 남는 하나의 단어는 ‘내려오심’이다. 그림의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지신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분의 내려오심은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배반 속으로 내려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내려가는 사랑이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는 사랑이었다. 십자가는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사랑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가며 거기서 우리를 만난다.

페르골레시의 음악도 그렇다. 그 선율은 위로 치솟기보다 자꾸 낮아지고, 머무르고, 흔들린다. 마치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 속까지 따라

내려가는 것 같다. 음악이 나를 높여 주기보다 오히려 내 안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낮은 자리에서 위로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전에 우리가 떨어진 곳까지 내려오신다.

## 십자가, 그 아래 서서

고난주간의 묵상은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슬픔은 절망으로 닫히지 않는다. 판 데르 베이던의 그림은 분명 죽음의 장면인데도 완전히 어둡지 않다. 페르골레시의 음악도 눈물로 가득하지만, 끝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슬픔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내려가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 사람들의 악의가 가장 짙게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깊게 드러났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지 눈물의 시간이 아니다.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며,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굳고 무딘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이다.

고난주간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아래 세운다. 그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리이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이며, 멀리서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까이 서는 자리다. 그림 속에서 너무도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랬다.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으면 한다. 판 데르 베이던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몸이 내려지는 장면을 마음에 그려 보고, 페르골레시의 선율처럼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목소리를 귀로 들어보았으면 한다. 그 앞에서 우리도 조용히 고백했으면 한다.

“예수님,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압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사랑 앞에서 제가 다시 서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이 길을 제 삶으로도 따르게 하소서.”

고난주간의 은혜는 우리가 슬픔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때 찾아온다. 그 슬픔의 맨바닥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배운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부활의 새벽이 잉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 QR

온누리교회와 NLS난민교회(New Life Spiritual Church)

# 함께 쓰는 <사도행전> 29장!

## 역선교 기적을 보여준 ‘시리아 난민 디지털 전도’



전영수 장로  
(이전선교본부  
중동융합선교팀장)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는 ‘NLS난민교회’ (New Life Spiritual Church, 중동 T국 소재)가 지난달 그들의 고향 시리아 본토에서 최초의 ‘디지털 전도’를 시도했다. SNS 광고를 통한 이번 디지털 전

도에 시리아인 110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그중에서 5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52명은 성경책을 받았고, 그중에서 48명을 위한 후속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시리아 난민들이 실시한 ‘시리아 본토 디지털 전도’는 난민선교의 엄청난 열매이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곱 가지 중요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개종에서 본토 전도까지  
그리고 두 교회의 약속

첫째, 하나님이 개종자 난민들을 사용하셨다. 2011년 시리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나님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파도를 일으키셨다. 이를 통해 일부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개종한 난민들이 선교의 진원지인 시리아 본토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극적인 ‘역선교’ 사례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타국을 떠돌던 이들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어 고향 땅으로 말씀을 되돌려 보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흠여집조차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일에 NLS난민교회 성도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이다.

둘째, 난민선교의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 NLS난민교회 대부분 리더십과 성도들은 본래 무슬림 배경이었으나 시리아 전쟁을 전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 교회는 믿음이 좋은 개종자들을 자체 제자훈련 과정인 ‘Peter’s Boat’에 입과시켜 전도자로 배출했고, 이들이 주변 난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세 번째 지교회까지 개척했다. 이번 시리아 본토의 디지털 전도는 ‘개종 → 제자 성장 → 이웃 전도 → 본토 전도’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난민선교의 최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온누리교회와의 약속을 지킨 시리아의 전도다. 2017년 온누리교회는 NLS난민교



NLS난민교회 집회 현장.

“어려운 형편에서도 꺼지지 않는 선교 열정이  
시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시리아 영혼들과의  
융합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NLS난민교회의 재정 필요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한다.”

회와 MOU를 체결하며 난민선교를 시작했는데, MOU 3항에 “시리아 전쟁이 끝나면 두 교회는 시리아를 전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디지털 전도는 바로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두 교회는 MOU 체결 이후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굳건한 신뢰를 쌓아 왔는데, 이번 시리아 디지털 전도를 통해 그 신뢰가 더욱 견고해졌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성취는 두 교회가 함께 걸어온 선교 여정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다. 선교는 단기적 열정이 아니라 오랜 신뢰와 인내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두 교회가 몸소 보여주었다.

새롭게 쓰이는 ‘Acts29’

넷째,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했다. 페이스북 광고 과정에서 계정 폐쇄 등의 위협에 맞서려면 저작권 시비가 없는 독자적인 영상이 필요했다.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한 그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AI를 활용해서 완성했다. 또한 보안기술과 IT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 10:16)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첨단기술이 복음의 장벽을 넘는 도구가 된 것이다.

다섯째, 지금이 ‘시리아 선교’를 할 때다. 현재 시리아에는 복음에 목말라하는 사람들

이 늘고 있다. 이번 광고의 반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 도달 수는 약 13만 명이었는데, 영상 조회수는 21만 회로 도달 수보다 60%나 많았다. 이는 한 사람이 영상을 여러 번 시청했다는 의미로 복음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기가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럴 때 원격 복음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데, NLS난민교회가 이번에 그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었다.

여섯째, 전방과 후방이 연합해서 사역한 모델이 되었다. 이번 광고 기간 전방의 NLS난민교회는 광고와 전도를 담당했고, 후방의 온누리교회 디지털선교팀 기도모임은 기도로 선교를 뒷받침하며 연합사역을 이루었다. 기도팀은 광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많은 시리아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책을 받도록 기도했다. 첫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온 것은 이 연합의 결실이라 믿는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디지털선교 기도모임은 이번예예를 구주로 영접한 5명의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또 마음이 열린 것으로 파악된 4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후속 기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들 중에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서 2차 전도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일곱째, 시리아 땅에서도 ‘Acts29 비전’이

시작되었다. 이번 NLS난민교회의 디지털 전도는 온누리교회 선교사역본부 중동융합선교팀과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기획과 방향 설정은 온누리교회가, 광고와 전도는 NLS난민교회가 담당했다. 온누리교회와 NLS난민교회가 손을 잡고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이다. 이로써 온누리교회가 바라던 Acts29 비전이 시리아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시리아 내 선교 활동은 디지털 광고와 전도를 넘어,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미영접 구도자 추가 전도, 영접자 양육과 예배 안내, 시리아인 아랍어로 제작된 듣는 QT 보급, 원격으로 하는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등 가정사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융합선교의 노력이 그 땅에 전파될 때 시리아에서도 <사도행전> 29장이 활발하게 기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NLS난민교회를 위해서

NLS난민교회가 하나님의 총성된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사정은 너무도 열악하다. 그들이 본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 2025년 지진으로 철거된 이후, 예배 장소 임차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월 1회 타민족 교회 건물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나머지 주일에는 영상 예배로 모이고 있다. 외부 선교사나 단체의 지원 없이 난민 스스로 설립한 교회이다 보니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은 시리아 아랍어로 된 듣는 QT를 꾸준히 만들어 성도 대부분이 매일 묵상하고 있다. 장차 이를 시리아로 보급할 꿈도 품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진행되는 두란노아버지학교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시리아 전역에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5월 난민 두란노아버지학교, 7월 난민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각각 중동 T국에서 시험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난민 강사진이 직접 강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꺼지지 않는 선교 열정이 시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

온누리교회는 2017년부터 이들을 품고 핵심 리더십 일부를 현지사역자로 허입해서 사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QT와 가정사역, 전도 사역 등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시리아 영혼들과의 융합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NLS난민교회의 재정 필요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한다.

문의: 010-3797-3684



사역 링크

## 이슈(Issue) 바로보기!

## 성경적인 조직과 조직문화 2 (Biblical Structure and Its Culture)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조직은 당연히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 세상에서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모든 관계를 배제한 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인 ‘절대 개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을 놓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 신체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등에 대한 깊은 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하여 희생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 존중 인권 사상과 함께, “하지만 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조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애국심과 직업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이 둘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이의 균형과 긴장에 의해 국가 또는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은 중세 왕정과 농업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끌어냄으로써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를 연 위대한 철학이다. 고착화한 기득권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기회를 만들(부흥이 일어남) 때마다 절대 개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진정한 회개)이 선행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의지 영역과 타인의 자유의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알고 이를 지킬 때 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공동체의 몸이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같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엡

또는 회비를 내는 조직은 서로 다르다. 기업은 최고 책임자가 종업원을 채용하는 조직인 반면, 국가는 선거와 세금을 통해서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조직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위계질서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위계질서를 위해 믿음에 근거한 (의인들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 의인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조직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최종 의사결정이

한다(창 11:4).

또 조직원들은 성과가 있을 때 최고 책임자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위는 권위자의 개인 인격에 의해 순기능(배려)이 역기능(폭력)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조직 전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이 커지면서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원심력인 위임이 매우 중요하다. 위임은 큰 조직이 뻗어 조직같이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변화가 큰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 업무의 총합으로 조직의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시장에서 분업의 원리) 최고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책임이 실현된다면, 공유 리더십을 통해서 최고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박성진 총장  
(OCC공동체, 포스텍교수, 한동대학교 총장)

### “최고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책임이 실현된다면, 공유 리더십을 통해서 최고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1:23). 이 공동체 의식은 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조직에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마 22:37~40).

조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는 실제 업무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의 믿음이다(롬 1:17).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초, 즉 믿음이 필요하다. 월급을 주는 기업 조직과 세금

매우 중요하다.

미국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 책임자의 최종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조직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전체 조직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 구심력이 업무 수행 및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심점을 잃어버린 조직은 마음과 힘이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흩어짐의 두려움을 느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 크리스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글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큐티에서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실 때 어미 나귀도 같이 있었나?’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낯설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날 말씀이 그랬습니다. 성경 앱으로 찾아보니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묘사되어 있지만, 어미 나귀가 함께 있다고 기록한 건 <마태복음>뿐이었습니다. 관련 이미지를 찾아보니 30여 장 가운데 단 한 장에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새끼 나귀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미 나귀는 어디에 있었을까?’ 본문을 더 읽어 보았지만, 어미 나귀에 대한 기록이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유난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지구력과

자생력이 뛰어나고 비교적 영리하지만, 한 번 가본 길만 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낯선 길을 가려면 매우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또한 수명이 길어서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새끼 나귀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함께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주변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낯선 길을 새끼 나귀 혼자였다면 온순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만나며 교사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안전해. 내가 널 지켜줄 거야’라는 안정감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해주는 것보다

안정감이 우선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어떤 아이는 목소리도 크고 들뜬 채 뛰어다니지만, 눈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뻣뻣한 학원 일정 때문에 공부는 잘하지만, 밝게 웃질 못합니다. 바쁜 부모님이 쥐여주신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을 사주며 관계를 맺으려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귀 친구들은 곧 떠나갑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부모를 기다리는 한 시간조차 두렵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부재와 불안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며 생존을 위해 ‘부모’의 기대에 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집중할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돌아켜보면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부모로서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과

정에서 아이를 혼자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편안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내 아이는 자연스레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이 ‘하하호호’ 웃는 가정에서 자란 안정감 있는 아이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합니다.

그저 새끼 나귀가 따라오도록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어미 나귀처럼, 아이 곁을 지켜주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아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그림

## 브라질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 풍당 라이브

CGN 풍당, 2000선교본부 협업 ... 3월 31일~4월 6일 기독 OTT ‘풍당’

CGN 풍당이 2000선교본부가 협업해서 남미 최대 규모의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부활절 연극)’를 3월 31일(화)부터 4월 6일(월)까지 기독 OTT ‘풍당’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한다. 3월 31일(화)부터 4월 5일(일)까지 매일 오전 8시(한국 시각)에 풍당 라이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브라질 현지 부활절인 4월 6일(월)에는 오전 6시에 서비스된다. 기독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AUTO DE PÁSCOA’는 브라질 대형 교회 시티처치가 22년째 하는 대표 공연으로, 매년 수만 명의 관객이 찾는 남미 최대 규모의 부활절 문화 콘텐츠다. 올해에는 ‘예수(Jesus)’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현대 무용과 합창 등으로 풀어낸다.

CGN 풍당은 이번 생중계에 4K



브라질 부활절 뮤지컬 ‘AUTO DE PÁSCOA’ 스틸컷

화질로 제공하고, AI 기반 실시간 자동번역 기술을 적용해 포르투갈어 공연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 자막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임영광 본부장(기독 OTT ‘풍당’ 제작본부)은 “2000선교본부와 협업으로 이뤄진 브라질 시티처치와의

협력은 CGN 풍당이 중남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면서 “지구 반대편의 신앙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CGN 풍당의 새로운 선교적 시도를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2-3275-9536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NGO 메디엑세스 드림팀, 안산 은혜교회에서 의료사역 실시

NGO 메디엑세스 의료봉사팀 ‘드림팀’이 지난 3월 22일(일) 안산 은혜교회에서 의료사역을 실시했다. 이날 사역에는 드림팀 소속 의료진과 스테프 등 봉사자 16명이 참여했다. 내과 50건, 치과 14건, 산부인과 6건 진료를 했고, 20명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산 은혜교회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섬기는 교회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소련 지역에서 이주한 한인 후손들이다.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언어 장벽과 체류 신분의 한계로 국내 일반 의료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림팀은 10년째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안산 은혜교회를 방문해 의료선교를 이어오고 있다. NGO 킹스웨이 코리아를 통해 후원 받은 의약품과 영양제도 상시 비치해 투약하고 있다.

드림팀 신규 봉사자도 모집한다. 한의사와 피부과 전문의의 참여가 시급하다. 이·미용 봉사자도 필요하다. 신규 환자들을 위한 비타민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도 필요하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2-570-7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 상반기 사회선교스쿨 베이직 참가자 모집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 저녁 8시 온라인(Zoom)

2026년 상반기 사회선교스쿨 베이직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5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수료하면 선택과목 2학점이 부여된다. 회비는 3천 원.

사회선교스쿨 베이직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회선교의 신학적 배경을 배우고, 크리스천의 사명을 깨닫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사회선교본부 산하 각 통합팀 및 사역팀(사회책임, 한누리, 사회나눔, 사회화합, 사회봉사)을 체험할 수 있다. 1주차 ‘사회선교란 무엇인가?’, 2주차 ‘사회선교의 성경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유진아 목사, 정현석 목사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 261기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참가자 모집

261기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코칭 훈련을 수료한 한 가정의 다른 세 가정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도록 돕는 부부코칭 프로그램이다. 비기독교인 및 타 교회 성도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11일(토)까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온누리교회아름다운동행’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10만 원.

문의: 010-5599-7604

##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이주민선교학교 화요일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이주민선교학교는 국내 이주민 선교 현황과 역사, 선교적 필요성과 방법론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주 노동자, 유학생, 난민, 다문화 가정 등 대상별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선교 전략과 사례를 함께 다룬다.

문의: 010-3788-8353

## 말씀으로 학교를 깨우다!

차세대 파워웨이브 ‘세븐 업(7UP)’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중고등부)가 새 학기를 맞아 말씀으로 학교를 깨우고 있다. 3월 초부터 1학기 동안(약 2~3개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학교 앞 QT 모임 ‘세븐 업(7UP)’을 한다.

‘세븐 업(7UP)’은 일주일에 한번,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각 부서 교사와 교역자가 이른 아침 학교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세븐 업(7UP)을 한다. 학생 381명, 교사 1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 대전, 제주, 서산온누리교회는 세븐 업(7UP)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세븐 업(7UP)에는 학생과 교사 총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최서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은 “세븐업을 통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NGO 더멋진세상, KOICA-NGO 봉사단 ‘사역 보고회’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3월 20일(금)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우간다에서 11개월 동안 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 파견 활동을 마친 월드프렌즈코리아(WFK) KOICA-NGO 봉사단원 4명의 사역 보고회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봉사단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열매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봉사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활동을 마친 봉사단원 4명 중에서 3명의 재파견을 최종 확정했다.

안수현 단원(말라위, 온누리교회 파송 전문인선교사)은 “현지의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정서적, 신앙적으로 더 크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올해도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참가자 모집

4월 9일~5월 28일 매주 목 오후 7시 30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양재 목요저녁 송재호 목사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9주 차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한산성 목사의집에서 진행된다(필수 참석). 참가신청은

4월 8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별도 구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에서는 강의와 조나눔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훈련을 한다. 문의: 010-3229-2040

/ 박지혜 기자

## ‘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 참가자’ 모집

4월 10일~5월 15일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양재 비전홀

‘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은 임신 준비, 출산 전후,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주차 ‘부부관계와 유아의 신앙과 인성 형성’, 2주차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친밀감’, 3주차 ‘성경적 관점의 임신, 태교와 출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4월 17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5757-3427

/ 박지혜 기자

##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2 모집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 2’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과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온라인 오

후 12시 30분까지, 대면 오후 1시까지, 5월 1일(금) 휴강. 참가신청은 4월 9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5602-4186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강동, ‘2026 행복이음 축제’ 개최

4월 5일 오후 1시 30분 나비쇼핑몰 1층 광장



사진은 '2025 행복이음 축제' .

강동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2026 행복이음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4월 5일(일) 오후 1시 30분 나비쇼핑몰 1층 광장(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14)에서 열린다.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난타, 버스킹, 워십, 색소폰 연주, 태권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2026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부활절 나눔’, ‘복음 콘텐츠’, ‘행복이음’을 주제로 부활절 달걀 나눔, 창조질서회복캠페인, 평강 캘리그라피, 부활절 찬양, 색소폰 연주, 태권도 퍼포먼스, 공감소비운동 등을 한다. 부활절 찬양은 강동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과 에셀찬양팀이 ‘부활의 소식’, ‘내 증인이 되리라’, ‘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등을 선보인다. 색소폰 연주는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태권도 퍼포먼스는 경희대 천호 태권도가 한다. 공감소비운동에는 손수레 양말(대표 곽호걸), 네일인(대표 송인아), 그랑프리 베이커리(대표 박성천) 등 지역사회 가게들이 참여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새사람사역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새사람사역팀은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큐티(QT)와 일대일제자양육, 인성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봉사자 모집 부문은 일대일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 양육자), 문서 전도, 중보기도, 악기, 예배 찬양 등이다. 주중 사역이 가능하고,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242-8743

### NGO 메디엑세스 봉사자 모집

NGO 메디엑세스 미디어 부문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사진 촬영 및 보정,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전반이다.

선발된 봉사자는 연중 진행되는 NGO 메디엑세스의 국내 의료사역 현장 및 주요 행사에 동행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 특히 5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우도에서 진행되는 ‘특별진료사역’에 동행할 봉사자를 기다린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이메일(mediaccess@naver.com) 또는 전화(02-570-7110)로 문의하면 된다.

### 선교의 새로운 바람!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평택, 68명 참석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평택’이 지난 3월 22일(일) 오후 2시 평택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선교의 새로운 바람’을 주제로 열렸다. 2000선교본부 리더십 및 봉사자, 평택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리더십, 평택M센터 임직원 등 68명이 참석했다.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평택에서는 설교, 주제 강의, 조별 토의, 조별 발표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장광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신동식 목사가 설교했다. 주제 강의는 김홍주 목사, 배행삼 목사, 김형일 집사, 정재호 집사가 했다.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 선교’를 주제로 2000선교본부의 전체 방향성과 2026년 중점 과제, 캠퍼스 선교 전략을 소개했다. 김형일 집사는 ‘융합 촉매선교와 사례’를 주제로 융합촉매 선교, 와이미션 대외사역 등을 소개했다. 정

재호 집사는 2000선교본부의 조직을, 배행삼 목사는 올해 해외 아웃리치 가이드와 앱을 안내했다. 평택 김선종 선교팀장은 ‘평택 선교 현황’을 주제로 평택온누리교회 선교 조직과 사역을 소개하고, 평택M센터 협력 선교와 온라인 아웃리치 성과를 발표했다. 조별토론에서는 ‘융합/촉매 선교 활성화 방안’, ‘1다락방 1선교 실천 아이디어’, ‘본부-캠퍼스 협력 개선 제안’ 등을 주제로 선교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캠퍼스 미션콘퍼런스는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선교 리더십들과 온누리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캠퍼스 선교 사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나누는 자리다. 2000선교본부가 주관한다.

문의: 02-795-9085

/ 홍하영 기자

###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4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오후 8시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3월 30일(월)까지 아이스쿨(ischool.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 원.

큐티스쿨은 큐티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쉽게 배우고 실습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이다. 큐티의 정의, 목적, 나눔의 준비와 주의사항, 큐티의 모델, 큐티 순서와 방법, 큐티의 특징 등을 배운다.

문의: 010-7131-1284

/ 홍하영 기자

###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봄을 봄’

4월 18일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

강남E공동체가 주관하는 전도콘서트 ‘봄을 봄’이 4월 18일(토)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다.

전도콘서트 ‘봄을 봄’에서는 춤과 악기 연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부채춤 임재, 기타 김유정, 트럼펫 조소영, 피아노 이지원 Grace J, 아코디온 조안나, 전자바이올린 아이린, 팜페라 김예은과 백성영, CCM 가수 지미션 등이 공연한다. 진행은 황진기 전도팀장(강남E공동

체)이 한다. 음악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황진기 전도팀장은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참석자들 모두가 음악으로 큰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보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2739-4433

/ 남현영 수습기자

### 봄맞이 전시회 풍성

‘감추인 십자가’, ‘계절의 향기’, ‘우리들의 찬양’

봄맞이 전시회가 풍성하다. 온누리아트비전이 주최하는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는 4월 5일(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 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에서 열린다. 기독교적 상징과 의미가 담긴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특히 제작 기간이 3년이나 걸린 ‘몽돌 이야기’가 첫선을 보인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복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박선양 작가 개인전 ‘계절의 향기’는 4월 27일(월)까지 갤러리 1707(강남구 신사동 583-3 제이비미소빌딩 4층 405호)에서 진행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목 휴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사랑부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달 특별전 ‘우리들의 찬양’은 5월 9일(토)까지 서빙고 사랑홀갤러리(신관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청년 김수(서빙고사랑부), 김재원(서빙고사랑부), 박혜신(예수사랑부), 이지영(강동사랑부), 최희민(양재사랑부) 미술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문의: 010-3128-2332(‘감추인 십자가’, ‘우리들의 찬양’)  
02-985-3609(‘계절의 향기’) / 남현영 수습기자

###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4일부터 매주 토 오후 2시 양재 JDS홀, 충성홀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예배와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재학 연령을 전후한

어린이들과 부모가 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 놀이, 가족 공동작업 등을 함께하면서 친밀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와준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 또는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족당 15만 원.

문의: 010-3710-9781



### 3월 세례자

|                                                                                                                                                                                                |                                                                                                                                                                                                                             |                                                                                                                                                                                    |                                                                                                                                                                      |
|------------------------------------------------------------------------------------------------------------------------------------------------------------------------------------------------|-----------------------------------------------------------------------------------------------------------------------------------------------------------------------------------------------------------------------------|------------------------------------------------------------------------------------------------------------------------------------------------------------------------------------|----------------------------------------------------------------------------------------------------------------------------------------------------------------------|
| 〈서빙고〉<br>강병조 720104<br>국서현 971206<br>김우연 950312<br>김현숙 630808<br>송경란 460425<br>정기승 620726<br>입교<br>이세영 960605<br>유아<br>김시안 250331<br>김현석 손지에<br>김하일 241016<br>김경년 김민주<br>허지호 240701<br>허성현 조정은 | 〈양재〉<br>김도윤 070516<br>김영은 821029<br>김형순 650129<br>노유정 970115<br>신현용 591125<br>전나래 900802<br>유아<br>서지우 221130<br>서석완 김미진<br>송하빈 251030<br>송기일 권혜민<br>심재이 230328<br>심근섭 김송희<br>진해은 250323<br>진영재 노가은<br>황하린 241210<br>황성국 노수림 | 〈대학城南〉<br>■여호수아<br>김현수 890322<br>이준범 930821<br>유아<br>김다미 250323<br>김현수 김도연<br>■하늘<br>민지홍 070202<br>염태은 030101<br>■허브<br>고주연 060526<br>최우현 031105<br>입교<br>김예빈 041101<br>이재훈 050719 | 정진욱 000612<br>■J4U<br>권창영 940729<br>변규희 941017<br>유민형 890928<br>■SNS<br>이삼수 941217<br>입교<br>김진수 920817<br>■SNS CROSS<br>조영교 900517<br>한종욱 981002<br>입교<br>안도영 861228 |
|------------------------------------------------------------------------------------------------------------------------------------------------------------------------------------------------|-----------------------------------------------------------------------------------------------------------------------------------------------------------------------------------------------------------------------------|------------------------------------------------------------------------------------------------------------------------------------------------------------------------------------|----------------------------------------------------------------------------------------------------------------------------------------------------------------------|

장로칼럼

전달되지 않은 편지



이동욱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2019년,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사건이 드러났다. 미국 우정공사 소속의 한 우편배달부가 수년 동안 맡은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집과 차량, 심지어 쓰레기통에 쌓아두거나 폐기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발견된 우편물은 수천 통에 달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고지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모든 편지는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그 누구의 손에도 닿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 개인의 직무유기를 넘어 맡겨진 것을 끝까지 전달해야 하는 책임의 본질을 묻는다. 우편배달부는 단순히 종이를 나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다. 그 통로가 막힐 때 끊어지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고, 기회이며, 때로는 인생 그 자체다.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고,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며, 누군가는 평생 기억될 순간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보면 그가 버린 건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고, 희망이며, 가능성이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맡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쓰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20)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 곧 지상명령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편지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전달자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세상 속에서 읽히는 살아 있는 문장이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닿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태도는 복음이 흐르는 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며,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도록 돕는 거룩한 동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편지를 마음 깊이 넣어 둔 채 살아간다. 언젠가 전하겠다고 미루고,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스스로 설득하며,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여전히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폐기한 일은 명백한 범죄이며, 중대한 잘못이다. 구원의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은 삶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맡겨진 걸 흘려보내지 않는 정체의 상태일 수 있다.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집을 지우기 위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용한 부탁이며,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요청이다. ‘가라’는 말은 멀리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라’는 의미다. ‘증인이 돼라’는 말은 많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초대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모른다.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 주겠느냐고.

권사칼럼

겨울 이불 개는 아침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겨우내 목까지 끌어 덮던 이불이 오늘은 유난히 무겁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뺨에 와닿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다. 불을 에이는 찬 바람 대신 상큼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어느새 두꺼운 이불이 거추장스러울 만큼 계절이 자랐다. 산뜻한 봄 이불로 바꿔야겠다.

한겨울, 이 이불은 얼마나 내게 포근함을 주었던가! 그러나 봄이 오니 그 포근함이 무거움으로 변했다. 무거움은 보이지 않는 구속이 되어 나를 답답하게 했다. 나도 모르게 그 무게를 벗어나고 싶어 애꿎게 발로 차 냈다. 그리고 봄 이불을 꺼내 펴봤다. 가볍게 얹히는 무게가 편안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 겨울 이불의 포근함은 오히려 짐이 된다. 덮는다고 다 사랑은 아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 3:1).

문득 내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살림과 육아,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한시도 편안히 쉬어볼 틈이 없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만며느리와 무남독녀 외동딸이라는 두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아래, 위층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 대식구 뒷바라지에 아이들과 살갑게 마주 앉아 눈 맞추고 살 여유가 없을 만큼 내 삶은 늘 동분서주 했다.

어쩌면 나는 아이들이 겨울 이불이 필요한 시기에 얇은 봄 이불로 늘 마음 시리게 살도록 손길이 부족한 엄마였는지도 모르겠다. 내

자식들에게 빚처럼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생겨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 주고 싶어도 이미 아이들은 각자 나름의 이불을 덮고 산다. 그 결핍 속에서도 제 위치에서 탄탄한 일가를 이룰 만큼 무탈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다.

어느새 대학생이 된 외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엄마”라며 주변을 맴돌더니 이제는 엄마와 선을 긋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딸은 내심 서운한 기색이다. 엄마의 이불이 필요 없을 만큼 자란 아이에게 여전히 겨울 이불을 덮어 주려는 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자랄 때는 온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의 강도도 변해야 한다. 성인이 된 뒤에도 관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각자에게 맞는 이불을 선택하며 살도록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라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전 3:6-7).

나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난 이후로는 먼저 전화하거나 자주 아이들 집 찾는 일을 삼간다.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 온다. 며느리는 물론이지만, 딸도 예외가 아니다. 무람없이 필요 없는 이불자락을 억지로 펼쳐 주려할 때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영역을 지켜줄 때 관계는 성숙하고 깊어진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전 3:5).

사랑은 덮는 일이 아니라 때를 아는 일인지 모른다. 오늘 나는 겨울 이불을 개어 넣었다. 사랑도 그 옆에 잠시 접어두었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궁동교회)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1의 눈은 자연적인 눈이다. 웅대한 자연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참으로 황홀하다고 느끼는 눈이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시인이 되거나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감수성을 더욱 발전시킨다.

제2의 눈은 지성적인 눈이다. 웅대한 자연을 보고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원리를 파악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시각이다. 이들은 때 지어 날아가는 철새를 보고 이동 경로를 연구하며 조류학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식물학을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제3의 눈이다. 이것은 자연적이

고 지성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각이다. 예수님이 이 눈을 가지셨는데, 우리 주변의 사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열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26~28).

예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묵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사물을 보고 하나

님과 연관시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이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만물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이 관점을 회복한다면 자연 만물을 결코 무생물이나 소비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돌이 그냥 돌이 아니게 된다. 그것들은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새들과 대화하고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들려주신 간증이 떠오른다. 캐나다 유학 시절, 황혼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V자 형태로 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셨다고 한다.

“너희도 나와 같은 창조물이지?”

그러자 기러기들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교수님을 향해 날아와 머리 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날아갔다고 한다. 그때의 놀라움과 감격, 희열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다. 새들도 교수님의 감탄을 알아듣고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가 제3의 눈을 회복해서 사물 안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일치하게 된다. 사물은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타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영혼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                                                                                                                                                                                                                                                                                                                                                                                                                                                                                                                                                                                                                                               |  |                                                                                                                                                                                                                                                                                                                                                                                                                                                                                                                                                                                                                                                                                                                                                                                              |  |                                                                                                                                                                                                                                                                                                                                                                                                                                                                                                                                                                                                                                                                                                                                                                                                                                                                                                                           |  |                                                                                                                                                                                                                                                                                                                                                                                                                                                                                                                                                                                                                                                                                                                                                                                                                  |  |                                                                                                                                                                                                                                                                                                                                                                                                                                                                                                                                                                                                                                                                                                                                                                       |
|-----------------------------------------------------------------------------------------------------------------------------------------------------------------------------------------------------------------------------------------------------------------------------------------------------------------------------------------------------------------------------------------------------------------------------------------------------------------------------------------------------------------------------------------------------------------------------------------------------------------------------------------------|--|----------------------------------------------------------------------------------------------------------------------------------------------------------------------------------------------------------------------------------------------------------------------------------------------------------------------------------------------------------------------------------------------------------------------------------------------------------------------------------------------------------------------------------------------------------------------------------------------------------------------------------------------------------------------------------------------------------------------------------------------------------------------------------------------|--|---------------------------------------------------------------------------------------------------------------------------------------------------------------------------------------------------------------------------------------------------------------------------------------------------------------------------------------------------------------------------------------------------------------------------------------------------------------------------------------------------------------------------------------------------------------------------------------------------------------------------------------------------------------------------------------------------------------------------------------------------------------------------------------------------------------------------------------------------------------------------------------------------------------------------|--|------------------------------------------------------------------------------------------------------------------------------------------------------------------------------------------------------------------------------------------------------------------------------------------------------------------------------------------------------------------------------------------------------------------------------------------------------------------------------------------------------------------------------------------------------------------------------------------------------------------------------------------------------------------------------------------------------------------------------------------------------------------------------------------------------------------|--|-----------------------------------------------------------------------------------------------------------------------------------------------------------------------------------------------------------------------------------------------------------------------------------------------------------------------------------------------------------------------------------------------------------------------------------------------------------------------------------------------------------------------------------------------------------------------------------------------------------------------------------------------------------------------------------------------------------------------------------------------------------------------|
| <div>서빙고 02.793.9686</div> <div>토요일예배<br/>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br/>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br/>일요일예배<br/>1부 오전 6:50 본당<br/>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br/>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br/>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br/>5부 오후 4:00시 비전홀<br/>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br/>새벽기도회<br/>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br/>월요치유집회<br/>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br/>화요Holy Impact집회<br/>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br/>수요오전여성예배<br/>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br/>수요목양예배<br/>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br/>목요경배와찬양<br/>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br/>목요선교집회<br/>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br/>금요회복예배<br/>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br/>금요심야예배<br/>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br/>한마음정신회복예배<br/>시간: 매주일 오전 11:20</div> |  | <div>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br/>담당: 김철희 목사<br/>문의: 010-5258-7525<br/>S브릿지 예배<br/>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br/>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br/>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br/>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br/>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br/>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br/>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br/>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br/>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br/>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br/>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br/>문의: 전도본부(02-3215-3214)<br/>사랑부예배<br/>대상: 장애인 고등&amp;청년<br/>시간: 매주일 오전 9:00 시온홀<br/>문의: 김태주 목사(010-6690-7694)<br/>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br/>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br/>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br/>꿈사랑부<br/>대상: 장애 유아, 초등, 중등학생<br/>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br/>문의: 김주희 전도사(010-4578-0516)<br/>일본어예배<br/>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br/>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br/>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br/>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br/>영어예배</div> |  | <div>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br/>문의: 02-3215-3684<br/>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 - 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2층 콘서트를<br/>중국어예배<br/>매 주일 13:45 경찬홀<br/>문의: 02-3215-3707<br/>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br/>서빙고M미션<br/>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br/>인천M미션<br/>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br/>안산M센터<br/>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div> |  | <div>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br/>김포M센터<br/>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br/>군산M센터<br/>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br/>남양주M센터<br/>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br/>서산M센터<br/>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br/>평택M센터<br/>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br/>화성M센터<br/>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br/>DRS 이혼자 정기예배<br/>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br/>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br/>나지원 총무(010-3489-2080)<br/>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br/>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br/>장소: 사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br/>문의: 서빙고(02-3215-3523)<br/>양재(02-570-7553)<br/>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div> |  | <div>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br/>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br/>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br/>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br/>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br/>장소: 온라인(Zoom)<br/>문의: 여성사역(02-3215-3227)<br/>한터공동체 예배<br/>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br/>일시: 매 주일 오전 10:00<br/>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br/>문의: 02-3463-9686<br/>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br/>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br/>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br/>문의: 010-3003-5910<br/>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br/>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br/>매 주일 오전 11시 30분<br/>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br/>문의: 010-4561-5192<br/>군선교 기도모임<br/>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br/>장소: 선교관 101호<br/>문의: 군선교팀(02-3215-3214)<br/>*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br/>BEE 선교 기도모임<br/>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br/>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br/>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br/>문의: 010-5250-1233</div> |
|-----------------------------------------------------------------------------------------------------------------------------------------------------------------------------------------------------------------------------------------------------------------------------------------------------------------------------------------------------------------------------------------------------------------------------------------------------------------------------------------------------------------------------------------------------------------------------------------------------------------------------------------------|--|----------------------------------------------------------------------------------------------------------------------------------------------------------------------------------------------------------------------------------------------------------------------------------------------------------------------------------------------------------------------------------------------------------------------------------------------------------------------------------------------------------------------------------------------------------------------------------------------------------------------------------------------------------------------------------------------------------------------------------------------------------------------------------------------|--|---------------------------------------------------------------------------------------------------------------------------------------------------------------------------------------------------------------------------------------------------------------------------------------------------------------------------------------------------------------------------------------------------------------------------------------------------------------------------------------------------------------------------------------------------------------------------------------------------------------------------------------------------------------------------------------------------------------------------------------------------------------------------------------------------------------------------------------------------------------------------------------------------------------------------|--|------------------------------------------------------------------------------------------------------------------------------------------------------------------------------------------------------------------------------------------------------------------------------------------------------------------------------------------------------------------------------------------------------------------------------------------------------------------------------------------------------------------------------------------------------------------------------------------------------------------------------------------------------------------------------------------------------------------------------------------------------------------------------------------------------------------|--|-----------------------------------------------------------------------------------------------------------------------------------------------------------------------------------------------------------------------------------------------------------------------------------------------------------------------------------------------------------------------------------------------------------------------------------------------------------------------------------------------------------------------------------------------------------------------------------------------------------------------------------------------------------------------------------------------------------------------------------------------------------------------|

|                                                                                                                                                                                                                                                                                                                                                                                                                      |  |                                                                                                                                                                                                                                                                                                                                                                                                                                                                                                                     |  |                                                                                                                                                                                                                                                                                                                                                                                                                                                                                                                   |  |                                                                                                                                                                                                                                                                                                                                                                                             |  |                                                                                                                                                                                                                                                                                                                                                                                                                                                                                 |
|----------------------------------------------------------------------------------------------------------------------------------------------------------------------------------------------------------------------------------------------------------------------------------------------------------------------------------------------------------------------------------------------------------------------|--|---------------------------------------------------------------------------------------------------------------------------------------------------------------------------------------------------------------------------------------------------------------------------------------------------------------------------------------------------------------------------------------------------------------------------------------------------------------------------------------------------------------------|--|-------------------------------------------------------------------------------------------------------------------------------------------------------------------------------------------------------------------------------------------------------------------------------------------------------------------------------------------------------------------------------------------------------------------------------------------------------------------------------------------------------------------|--|---------------------------------------------------------------------------------------------------------------------------------------------------------------------------------------------------------------------------------------------------------------------------------------------------------------------------------------------------------------------------------------------|--|---------------------------------------------------------------------------------------------------------------------------------------------------------------------------------------------------------------------------------------------------------------------------------------------------------------------------------------------------------------------------------------------------------------------------------------------------------------------------------|
| <div>양재 02.573.9686</div> <div>토요일예배<br/>1부 오전 9:00 사랑홀<br/>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br/>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br/>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br/>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br/>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br/>1부 새벽기도회<br/>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br/>2부 새벽기도회<br/>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br/>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br/>주일 오후 7:00 사랑홀<br/>수요오전여성예배<br/>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br/>수요저녁예배<br/>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br/>금요심야예배<br/>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div> |  | <div>브릿지33+ 예배<br/>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br/>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br/>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br/>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br/>Point5 예배<br/>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br/>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br/>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br/>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br/>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br/>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br/>도곡 차세대 9:00 예배<br/>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br/>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br/>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br/>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br/>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br/>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br/>도곡 차세대 11:30 예배</div> |  | <div>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br/>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br/>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br/>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br/>사랑부 예배<br/>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br/>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br/>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3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br/>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br/>프랑스어 예배<br/>설교: Samuel Hatangimana<br/>Maxime Szustak<br/>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br/>문의: 010-9690-0069 *통역 지원<br/>스페인어예배<br/>설교: 김종균 목사<br/>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br/>문의: 010-4053-2179<br/>하나공동체 예배<br/>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div> |  | <div>들을 위한 공동체<br/>매 주일 14:00 JDS홀<br/>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br/>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br/>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br/>장소: 양재 화평홀<br/>문의: 02-570-7277<br/>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br/>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br/>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br/>BEE 선교 기도모임<br/>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br/>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br/>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br/>문의: 010-6422-8376<br/><br/>*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div> |  | <div>부천 032.322.9686</div> <div>토요일예배 10:00 본당<br/>일요일예배<br/>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br/>대학청년 16:00 본당<br/>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br/>주일 차세대예배<br/>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br/>수요오전여성예배<br/>매주 수 오전 10:30<br/>한사랑예배(탈북민)<br/>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br/>장애인예배<br/>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br/>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div> |
|----------------------------------------------------------------------------------------------------------------------------------------------------------------------------------------------------------------------------------------------------------------------------------------------------------------------------------------------------------------------------------------------------------------------|--|---------------------------------------------------------------------------------------------------------------------------------------------------------------------------------------------------------------------------------------------------------------------------------------------------------------------------------------------------------------------------------------------------------------------------------------------------------------------------------------------------------------------|--|-------------------------------------------------------------------------------------------------------------------------------------------------------------------------------------------------------------------------------------------------------------------------------------------------------------------------------------------------------------------------------------------------------------------------------------------------------------------------------------------------------------------|--|---------------------------------------------------------------------------------------------------------------------------------------------------------------------------------------------------------------------------------------------------------------------------------------------------------------------------------------------------------------------------------------------|--|---------------------------------------------------------------------------------------------------------------------------------------------------------------------------------------------------------------------------------------------------------------------------------------------------------------------------------------------------------------------------------------------------------------------------------------------------------------------------------|

|                                                                                                                                                                                                                                                                                                                                                                                                                                                                                     |  |                                                                                                                                                                                                                                                                                                                                                                                                                                                                                                                                                                           |  |                                                                                                                                                                                                                                                                                                                                                                                                                                                                       |  |                                                                                                                                                                                                                                                                                                                                                                              |  |                                                                                                                                                                                                                                                                                                                                                                                                                                                                             |
|-------------------------------------------------------------------------------------------------------------------------------------------------------------------------------------------------------------------------------------------------------------------------------------------------------------------------------------------------------------------------------------------------------------------------------------------------------------------------------------|--|---------------------------------------------------------------------------------------------------------------------------------------------------------------------------------------------------------------------------------------------------------------------------------------------------------------------------------------------------------------------------------------------------------------------------------------------------------------------------------------------------------------------------------------------------------------------------|--|-----------------------------------------------------------------------------------------------------------------------------------------------------------------------------------------------------------------------------------------------------------------------------------------------------------------------------------------------------------------------------------------------------------------------------------------------------------------------|--|------------------------------------------------------------------------------------------------------------------------------------------------------------------------------------------------------------------------------------------------------------------------------------------------------------------------------------------------------------------------------|--|-----------------------------------------------------------------------------------------------------------------------------------------------------------------------------------------------------------------------------------------------------------------------------------------------------------------------------------------------------------------------------------------------------------------------------------------------------------------------------|
| <div>수원 031.895.6500</div> <div>일요일예배<br/>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br/>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br/>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br/>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br/>대학청년(주일)<br/>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br/>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br/>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br/>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br/>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div> |  | <div>대전 042.825.3642</div> <div>토요일예배<br/>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br/>일요일예배<br/>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br/>주중예배<br/>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br/>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br/>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br/>주일 차세대예배<br/>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div> |  | <div>남양주 031.515.3521</div> <div>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br/>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본당<br/>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br/>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br/>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br/>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br/>차세대예배<br/>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div> |  | <div>평택 031.651.9680</div> <div>토요일예배 10:20 본당<br/>일요일예배<br/>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br/>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br/>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br/>주중예배 및 모임<br/>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br/>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br/>차세대예배<br/>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br/>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div> |  | <div>인천 032.437.9686</div> <div>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br/>일요일예배<br/>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br/>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br/>차세대예배<br/>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br/>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br/>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br/>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br/>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div> |
|-------------------------------------------------------------------------------------------------------------------------------------------------------------------------------------------------------------------------------------------------------------------------------------------------------------------------------------------------------------------------------------------------------------------------------------------------------------------------------------|--|---------------------------------------------------------------------------------------------------------------------------------------------------------------------------------------------------------------------------------------------------------------------------------------------------------------------------------------------------------------------------------------------------------------------------------------------------------------------------------------------------------------------------------------------------------------------------|--|-----------------------------------------------------------------------------------------------------------------------------------------------------------------------------------------------------------------------------------------------------------------------------------------------------------------------------------------------------------------------------------------------------------------------------------------------------------------------|--|------------------------------------------------------------------------------------------------------------------------------------------------------------------------------------------------------------------------------------------------------------------------------------------------------------------------------------------------------------------------------|--|-----------------------------------------------------------------------------------------------------------------------------------------------------------------------------------------------------------------------------------------------------------------------------------------------------------------------------------------------------------------------------------------------------------------------------------------------------------------------------|

|                                                                                                                                                                                                                                                                                                                 |  |                                                                                                                                                                                                                                                                                                                                                                        |  |                                                                                                                                                                                                                                                                                                                                                |  |                                                                                                                                                                                                                                                                                                                                    |  |                                                                                                                                                                                                                                                                      |
|-----------------------------------------------------------------------------------------------------------------------------------------------------------------------------------------------------------------------------------------------------------------------------------------------------------------|--|------------------------------------------------------------------------------------------------------------------------------------------------------------------------------------------------------------------------------------------------------------------------------------------------------------------------------------------------------------------------|--|------------------------------------------------------------------------------------------------------------------------------------------------------------------------------------------------------------------------------------------------------------------------------------------------------------------------------------------------|--|------------------------------------------------------------------------------------------------------------------------------------------------------------------------------------------------------------------------------------------------------------------------------------------------------------------------------------|--|----------------------------------------------------------------------------------------------------------------------------------------------------------------------------------------------------------------------------------------------------------------------|
| <div>강동 02.475.9686</div> <div>토요일예배 10:30 본당<br/>일요일예배<br/>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br/>차세대예배<br/>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br/>장애인예배<br/>사랑부 11:30 경찬홀<br/>주중예배<br/>수요예배 10:30 본당<br/>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br/>새벽예배 6:20 본당</div> |  | <div>양지 031.331.8171</div> <div>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br/>일요일예배<br/>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br/>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br/>차세대예배<br/>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br/>주일기도모임<br/>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br/>주중예배<br/>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br/>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br/>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br/>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div> |  | <div>영종 032.752.7937</div> <div>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br/>일요일예배<br/>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br/>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br/>새벽예배<br/>월~금 6:00 백향목홀(3층)<br/>차세대예배<br/>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br/>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div> |  | <div>제주 064.794.8090</div> <div>일요일예배<br/>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br/>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br/>차세대예배<br/>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br/>주중예배<br/>두드림 수요예배 10:30 본당<br/>엠티드림 금요일예배 20:00 본당<br/>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div> |  | <div>서산 041.665.9686</div> <div>일요일예배<br/>1부 9:00 / 2부 11:30 본당<br/>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br/>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br/>차세대예배<br/>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br/>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br/>파워웨이브 9:30 비전홀<br/>주중예배<br/>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br/>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br/>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div> |
|-----------------------------------------------------------------------------------------------------------------------------------------------------------------------------------------------------------------------------------------------------------------------------------------------------------------|--|------------------------------------------------------------------------------------------------------------------------------------------------------------------------------------------------------------------------------------------------------------------------------------------------------------------------------------------------------------------------|--|------------------------------------------------------------------------------------------------------------------------------------------------------------------------------------------------------------------------------------------------------------------------------------------------------------------------------------------------|--|------------------------------------------------------------------------------------------------------------------------------------------------------------------------------------------------------------------------------------------------------------------------------------------------------------------------------------|--|----------------------------------------------------------------------------------------------------------------------------------------------------------------------------------------------------------------------------------------------------------------------|



CGN

# 21

주년  
2005-2026

CGN이 20여 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21주년을 맞이한 CGN은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 '복음의 등대'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개국 특집 다큐

### 소년이 어른이 되어

MK의 고백, 10년 후



10년 전, CGN을 통해 만났던  
MK들의 특별한 성장 기록

본방송 | 3월 29일(일) 오전 10시 30분

### 땅끝의 증인들

바톤터치 끝나지 않는 선교의 여정



양승훈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전하는  
아프리카 '차드'의 선교 이야기

본방송 | 4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모든 방송은 **풍경**과 **CG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